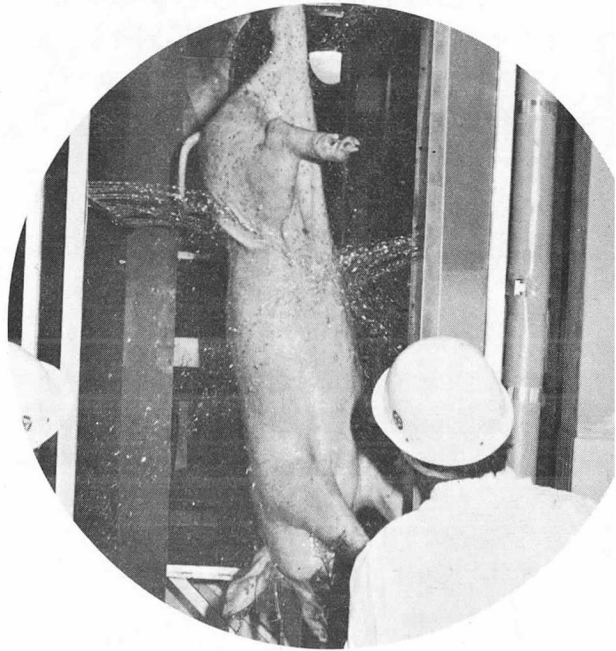


도축장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점



유철호
(농경련 축산개발실장)



1. 서론

우리나라 도축장은 대체로 산지와 소비지, 행정단위 중심으로 개설되어 소규모 도축장이 곳곳에 산재하였으나 점차 정비되는 과정에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추세를 보더라도 1977년 도축장 수는 515개였던 것이 1980년에는 382개소, 1985년말에는 183개소로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축장은 시설기준에 따라 9개의 도매기능을 하고 있는 도축장을 포함 66개소의 특급 도축장과 99개소의 1급 도축장, 18개소의 2급 도축장이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도축장은 운영권자가 시장 또는 군수인 관운영, 축협, 민간업체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급 도축장은 관운영 2개소, 축협 3개소, 민간운영 61개소이다. 1급 도축장은 관운영이 69개소, 축협운영이 9개소, 민간업체가 21개소, 2급 도축장은 관운영이 10개소, 민간운영이 8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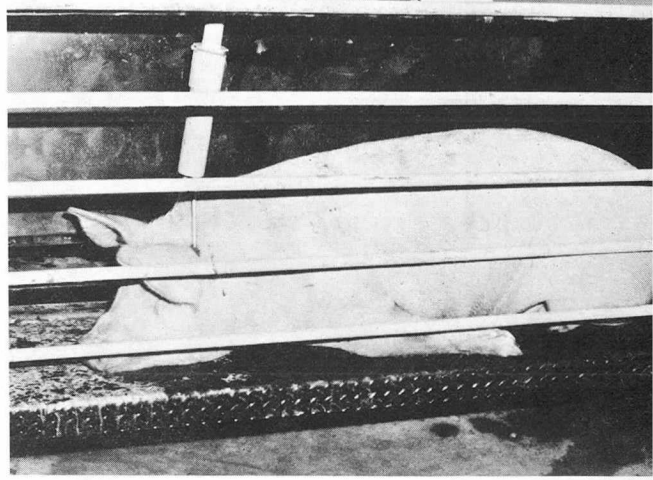
대부분의 도축장에서는 소와 돼지 도축을 겸하고 있고 작업과정을 보면 수탁·계류·도살·해체 및 박피 작업과 이에 따른 세척·부산물처리·냉장 및 폐수처리, 그리고 도매시장에서는 상장과 경매작업이 추가된다.

지난해 도축량은 소 86만3천두, 돼지 7백76만두로 생체증량으로 돼지 도축량은 소의 2배 가량이다. 돼지 도축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1980년 2백만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7백 80만두로 증가하여 연 18.5%씩 증가하여 왔다. 앞으로 국내 소 사육두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쇠고기 수입이 확대되게 되면 도축시설과 도축장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돼지 도축을 중심으로 논의되게 될 것이다.

2. 문제점

지금까지 거론되어온 도축시설의 문제점은 대체로 두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겠다. 첫째는 현존 도축장의 입지와 이와 관련 파생되는 문제이고, 둘째는 도축부분 생산직 근로자 확보난 및 노임상승과 효과적 인 위생처리를 위한 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이다.

첫번째 입지관련문제는 도축장이 육류 대량소비지인 도시근근에 위치하여 육류소비증가에 따라 시설이 확장되어 왔으나, 도시화가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주위에 산업시설과 주택이 밀집하게 되어 이 이상의 확장은 이미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특히 돼지 사육출하가 아직도 대도시로 집중되어 대도시 도축물량은 계속 늘어 시설의 협소문제는 더욱 심각하여지고 있다. 참고로 축산물 도매시장의 입지지역을 보면, 상업지대가 2, 주거지대가 1, 공장지대가 5이며 도매시장의 도살·해체작업 면적의 분표를 보면 2,111평에서 657평(평균 211평), 계류장 378평에서 714평(평균 378평)의 협소한 면적에서 전국 소와 돼지도축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돼지 출하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시설문제는 계류장의 협소문제이다. 계류시간이 연장될수록 두당 체중이 감소, 운임부담과 출하자의 체류비용이 추가되고 돼지의 폐사율이 높아져 출하자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떨어진 곳에 중간 계류장을 설치 운영하는 도축장이 있다. 이와함께 급수 시설, 샤워시설 축주대기실, 주차장, 생체 계근시설 등의 확장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장지대 주민들의 악취 및 소음에 따른 항의와 이전하라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공해문제 해결차원에서 폐수처리 비용이나 악취제거를 위한 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매시장으로서는 도축물량이 증가하여 확장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현 위치에서 확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이다. 대부분의 도축장에서 거의 모든 작업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근년에는 기업체의 빈번하여진 노사분규 발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건비 인상압력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도축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우대받지 못하는 직종으로 인식되어 있고 작업이 되어 여타 직종에 비하여 인력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직종으로 기계화의 필요성은 다른 업체에 비하여 절박하다.

그러나 기계화 설비투자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처리규모에 따라 시설투자 규모는 다르겠으나, 한 예로 1985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서울 가락동 소재 축협공판장의 도축시설의 연간 처리능력은 하루 8시간 작업기준하여 소 10만7천두, 돼지 76만3천두 수준으로 시설투자에 120억원이나 소요되었다. 특히 서울을 비롯

대도시에 입지한 민영도축장의 경우는 자금확보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시설협소와 공해발생 문제로 시설 이전 여론에 따라 도축장도 옮기고 시설 현대화를 하려 해도 시설부지 선정, 지가상승에 의한 부담 등 문제가 겹쳐 현 입지에서의 시설투자는 주춤 상태이다.

1987년 자료에 의한 도매시장의 수지분석에 의하면 9개의 도매시장중 2개소를 제외하고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타 도축장의 경영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수지상태를 논하지 못하나 도매시장 조사자료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도축장 운영상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몇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는, 도살·해체작업에 있어서 가동율의 저하이다. 전도매시장의 평균 가동율은 소의 경우 57.2%이고, 돼지의 경우 평균가동율이 61.8%이므로 돼지의 가동율이 소의 가동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율의 분포를 보면 79.1%에서 26.9%로 가동율은 도매시장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수도권지역과 부산 소재 도매시장 가동율이 높다. 여기에서 계산한 가동율은 1일 작업시간을 8시간 기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시간 작업에는 관행상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첫째는 도축전 계류 세척이나 검측과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체되고, 둘째는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과 경매이후 바로 정육점이나 대량소비처에 저녁 늦지않게 배달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작업을 일찍 끝내고 있다. 시설가동율의 제고는 직접 경영수지를 호전시키게 되므로 도축장들은 도축수수료의 조정, 출하장려금 지원, 계통출하 장려 등 여러가지 물량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가동율이 낮은 지역 도축장 일수록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하여 일정지역에서 생산된 소와 돼지는 그 지역에서 도축 후 타지역 반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산지 권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축작업자 1인당 연간 처리두수를 보면 소의 경우 459~1,694두로 도매시장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도매시장에 있어서 시

일부 도축장에서는 도축물량확보를 위하여 출하자들에게 출하장려금이나 운영보조금 등을 지불하여 실제 출하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축장의 수지는 수수료율 보다는 도축장간의 가동율에 따라 크게 달라 앞으로 도매시장간 위탁상장 수수료의 차등이나 출하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도축물량확보 노력에 따라 도매시장 별로 수지상태는 큰 차이가 예상된다.

설계선과 경영합리화 노력에 따라 현인원으로도 소의 경우 1인당 1천6백94두, 돼지의 경우 1만1천8백39두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도축자의 경우는 연간 1인당 처리두수의 차이가 도매시장에 비하여 적으나 인건비 절약을 통한 수지개선의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는 도축수수료의 법정요율 범위내에서 자율화 문제이다. 도축수수료는 축산물 위생법상의 도축장 사용에 대한 비용(생축의 수탁계류에서 도살·세척 및 냉장에 이르는 작업과 폐수처리 등)이며,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위탁상장수수료가 관행적으로 도축수수료에 포함, 최고한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까지 부과되나, 시 및 도의 조례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의 도축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5%에서 3.0%까지 도매시장 별로 다르며 여타 도축장에서 정액제로 지역마다 상이하나 대체로 도매시장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도축물량확보를 위하여 출하자들에게 출하장려금이나 운송보조금 등을 지불하기도 하여 실제 출하자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있다. 근년에

와서 도축수수료는 업계의 인건비를 비롯 제반비용의 상승요인 주장을 수용하여 법정 최고율에 근접하고 있다. 도축장의 수지는 수수료율 보다는 도축장간의 가동율에 따라 크게 달라 앞으로 도매시장간 위탁상장수수료의 차등이나 출하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도축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도매시장의 수지상태는 도매시장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육 반입 소요비용중 일반도축장 도축비는 도매시장 경우 수수료율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도매시장 수수료율에 따라 일반도축장 경유물량 변동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도매시장 경유물량 증감과 경영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세제는 지방도축장의 통폐합정리와 도매시장화이다. 지방의 소규모 도축장들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도축검사 인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관점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소규모 도축장의 통폐합으로 도축시설의 규모화로 도축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게 되며, 근년에 와서 교통통신망의 확충으로 통폐합을 위한 여건은 어느 때 보다도 성숙되어 있다. 이와 함께 통폐합된 대규모 도축장을 도매시장화하여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유통부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하게 될 것이다. 축산부류 도매시장은 1960년 말부

터 개설되기 시작하여 산지로부터 반입된 소와 돼지를 도살·해체한 후 지육형태로 경매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해 왔고, 지육형태로 정육점과 대량소비처에 판매하는 분배기능을 수행 육류유통과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비경유물량이 연간 소와 돼지 총 도축두수의 60% 가량을 각각 점하여 이 물량에 대한 가격형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가격형성 문제 뿐만 아니라 대체로 영세 도축장의 산재로 유발되는 여러가지 부조리가 각양각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지방도축장의 통폐합시 되도록 많은 도축장들이 도매시장 기능을 하도록 하여 도매시장 경유율을 높여 나가고, 비경유물량은 최소화하여 나감으로서 거래와 가격형성에 있어서 부조리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근래에 도축장의 신규설치는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도축장에 대한 시설개선과 등급격상을 추진하여 왔다. 도축장 권역화 및 시설의 규모화와 근대화로 앞으로 도축장수는 60개 정도로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3. 맺는 말

이제까지 지적된 문제점들은 따로 분리하여 논의하기 곤란한,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축시설의 현대화와 운영상 노출된 해묵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도축장의 운영효율과 공해문제 등을 고려하여 산지공급지인 몇개 군을 통합, 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이다. 이에 따라 지방도축장으로 부터 지육반입을 일반화하여 대도시 도매시장이 자체내에 도축장을 병설하지 않고 도매시장 기능만을 담당토록 유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도축장 통폐합 정리는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확보문제가 가장 큰 제약이 되어 왔으므로 계획에 상응하는 자금의 확보방안이 선결되어야 하겠다. ■

